

SPORTS ‘제2 오타니 꿈꾼다’…광주일고 김성준, ML 직행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130만 달러 계약…투·타 겸업 ‘이도류’ “마이너서 기반 다져…3~4년 안에 메이저 무대 진입 목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제 모습을 빨리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광주일고 김성준(3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로 직행한다.

김성준은 최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계약에 합의했다. 알려진 계약금은 130만 달러.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통해 미국 무대로 진출했던 피츠버그 배지환(120만 달러), LA다저스 장현석(90만 달러)을 뛰어넘는 규모다.

수창초, 충장중 베이시볼클럽(충장BC)을 거쳐 광주일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성준은 국내 고교야구 최고의 기대주다. 중학교 시절부터 투·타를 겸업했던 그는 153km의 강속구와 함께 뛰어난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스카우터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는 올 시즌 더욱 기량이 좋아져 2026 KBO 신인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혔다.

그러나 김성준의 선택은 KBO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였다.

김성준은 “미국에 가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텍사스를 포함해 네 군데에서 러브콜을

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텍사스를 선택하게 됐다”면서 “텍사스와 미팅 당시 관계자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믿음을 많이 주셔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텍사스행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이도류’ 활동이 가능해서다.

투·타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김성준의 톨모텔은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다. 텍사스는 김성준에게 투타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고, 관련 프로그램까지 짜주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김성준은 “투타에 대한 열망은 어렸을 때부터 컸다. 2023 WBC 당시 오타니 선수의 활약을 보고, 오타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저는 남보다 빠르고 장타력이 있다. 마운드에서도 일단 올라가면 과감하게 던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력한 신인드래프트 1순위 후보인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행을 선택한 것 역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운재 광주일고 감독 역시 김성준에 대해 “마

운드 위에서 겁먹지 않는다.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상대하는 게 (김)성준이의 장점이야”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메이저리거 명맥을 이어 김성준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

김성준은 “주변분들이 저에게 남보다 운동신경이 좋고 야구도 똑똑하게 플레이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단점 또한 어떤 걸 보완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해주셨다”면서 “특히 모든 건 제 선택에 달려있다고 조언해주셨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메이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성준은 “부모님께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셨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집중하려고 한다. 마이너에서 시합과 운동을 소화하면서 3~4년 안에는 메이저리그에 올라 팬들에게 제 야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3일 황금사자기 일정을 마친 그는 재경비 후 곧 미국행에 오를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스포츠 안전은 필수…책임감 가져야”

광주시체육회, 안전교육…회원단체 임직원 200명 참여

광주시체육회가 체육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체육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광주체육인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2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송창영(시체육회 부회장) 광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 종목단체, 스포츠클럽 등 임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체육인 스포츠 안전 인문학’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송창영 교수는 방재안전 분야 20여 년 이상 활동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현재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이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교육은 체육인들로 하여금 스포츠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인식을 높

이고자 마련했다. 현장의 다양한 재난사례와 현대사회의 위험 구조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안전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며 안전이 단순한 지침이나 규정을 넘어선 공동체적 책임임을 강의에 담았다.

시체육회는 이번 체육인 대상 안전교육이 체육인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재난안전사고의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 앞으로 건전한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다. 교육을 계기로 일상 속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체육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가 체육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체육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광주체육인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AI페퍼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 하루요 교체 영입

올림픽·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 日 베테랑 미들블로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2025~2026 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를 시마무라 하루요(33·사진)로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AI페퍼스는 지난 4월 열린 ‘2025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호주 출신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를 지명했으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교체를 결정했다.

신장 182cm의 시마무라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10년부터 일본 V리그 NEC RED Rockets 소속으로 활약했다.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베테랑 선수로, 미들에서 블로킹과 공격뿐 아니라 세심한 플레이에서도 팀에 큰 힘이 될 줄 것으로 기대해 시마무라 선수를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AI페퍼스의 선택을 받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NEC와 인연이 있는 팀에 합류하게 돼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서석중 검도부가 최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남중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산대 검도팀이 최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남대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석중 검도,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시즌 ‘2관왕’

결승서 상인천중 2-1 제압…윤찬희·육하준, 개인전 은·동
조산대 검도 단체전 우승…“남은 대회서 좋은 성적 기대”

광주서석중학교 검도부가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달성,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서석중 검도부는 최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상인천중을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일 열린 용인대 총장기 검도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서석중은 이로써 2개 대회 연속 우승기를 휘날렸다.

서석중은 조치원중(5-0)과 성남중(3-0)을 차례로 꺾은 뒤 4강전에서 순천왕운중을 2-1로 물리쳤다.

결승에서는 상인천중을 상대로 선봉 권민수와 2위 문율이 득점없이 비긴 뒤 중견 윤찬희가 상대 박효관에게 0-2로 패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부장 허경도가 상대 고종수를 2-0으로 꺾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주장전에서 육하준이 상대 김민상을 2-1로 제압해 전세스코어 2-1로 역전 우승을 따냈다.

윤찬희와 육하준은 남중부 개인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윤찬희는 개인전 결승에서 김민상(상인천중)에 0-1로, 육하준은 준결승에서 김민상에 1-2로 각각 패했다.

이재경 서석중 검도감독은 “선수단 전원이 동계 훈련부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 결과 연속 우승을 하며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 좋은 기세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고 전했다.

조산대 검도부도 남대부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조산대는 예선에서 제주대와 우석대를 연파한 뒤 준결승에서 용인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충북대와의 결승에선 선봉 김민수가 상대 강주원을 2-1로, 2위 함우진이 도원경을 2-0으로 제압했다. 이어 중견 정우진이 성민제에 0-1로 졌으나 부장 안태준이 윤우현을 2-0으로 물리쳐 우승을 확정, 주장 조도현이 김상혁에 0-2로 지면서 최종 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오길현 조산대 검도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다”며 “올해 남은 경기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광주 탑골산 전지원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준결승에서 박시은(충남체육회)에 0-1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경북 어르신 동호인, 영광서 생활체육 우호교류

전남어르신생활체전 연계
화합·치유·우정의 장 마련

영광에서 전남과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스포츠로 우정을 꽃피운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202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는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열리며 경북 지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 80명이 전남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이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경북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치유와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202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해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모습.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이 이끄는 경북선수단은 게이트볼, 탁구, 그라운드골프, 소프트테니스, 파코골프,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참가한다. 또한 경기 외에도 문화탐방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양 도간의 우호를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첫날인 14일에는 영광스포티움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지역 명소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

과 환영만찬이 이어지면서 참가자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15일에는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하고,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종목별 친선경기를 펼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불갑사 및 불갑산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전남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